

SINCE 2009

SEOUL ROSE CLUB

NEWSLETTER

제 1호 | 2016. 01. 05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장미는 흔히 타국에서 온 식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가꾸고 좋아했던 식물입니다. 우리의 장미문화에 관한 기록은 최소한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시작되며, 많은 문장과 시, 그림으로 그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정원 장미의 원류인 야생의 장미들은 우리의 삶과 정서에 오롯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야생장미인 찔레, 해당화에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아우르는 한국인의 소박한 애환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해방 이후, 서울, 부산, 전주, 경주, 진주, 마산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미를 가꾸거나 장미전시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간하는 등 왕성한 동호인 활동을 했던 장미 애호가들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집 뒤꼍의 정원문화는 압축성장이 가속되던 1970년대 산업화의 용솟음 속에서 주거문화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자리를 잃게 되었고 장미를 가꾸고 좋아했던 이웃의 장미문화도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사회에서 장미동호인의 모임인 서울장미회가 조직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 당시 허정 국무총리의 관심과 후원 속에서 서울시 수유리 제일장미원이 장미원으로서의 기능을 정립하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장미문화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장미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서울장미회는 10여년의 활동을 거쳐 한국장미회로 발전하였지만 그 활동에 대한 기록과 내용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의 장미동호회지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은 1961년 전주장미회의 장미회보 창간호입니다. 전주장미회는 서울장미회보다 2년 앞선 1959년 5월에 발족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미동호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미회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주 장미회 회원 김갑배 선생에 의하면 (1993.3, 월간 원예 105호), 장미회보 창간호에는 ·발간인사 ·연혁 ·회칙 ·장미의 계통 ·재배 경험기 ·전시회와 심사규정 소개 ·설문응답 ·회원명단 ·회원소식 ·편집후기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 활동이 1970년 산업화의 흐름과 함께 그 맥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는 Rosarian이라고 불리어 지는 장미애호가들이 Rose Society를 조직하여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로즈소사이어티연합회 WFRS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에는 39개의 국가 장미회(National Rose Society)가 가입되어 세계 장미애호가들 간의 유대를 증진하고 장미에 대한 지식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세계 최초의 장미회인 영국왕립장미회- RNRS(The Royal National Rose Society)는 1876년도에 창립되어 장미 가꾸기와 재배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간을 맞는 서울로즈클럽의 장미소식지는 그 동안 장미공부모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장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우리의 숨어있는 장미문화와 유산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아울러 세계장미회의 조류와 국제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획득과 나눔의 기회로 활용되어 장미동호인 상호간의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매개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사회의 장미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끊어졌던 우리 사회 장미동호인 활동의 맥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것 있습니다.

작게 내디디는 첫 걸음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식물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울로즈클럽 회보 창간을 맞이하며..

김육균 로زاری안

/CONTENTS/

축하 메시지 Congratulatory Message

06 '세계로즈소사이어티연합회(WFRS) 회장'의 축하 메시지

사람과 장미 Rosarians, Rose Societies, Rose Breeders

08 로자리안 : '일본 치바 자연사박물관의 미카나기 박사'

10 서울로즈클럽 : '푸르네 가든볼런티어'에서 '서울로즈클럽'이 되기까지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12 '화요일 정기 공부모임' 이야기

14 '장미 책' 이야기

16 민화로 만나는 장미

장미 정원 Rose Gardens

18 첫 장미여행 이야기

20 Thames Valley의 'Savill Garden'

발행일자 _2016.01.05

편집인 _김옥균, 김수연, 이성현

편집디자인 _박혜미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

회원접수 _

문의 ; seoulroseclub@naver.com

황보순 로자리안 ; 010-4761-2373

입회비 ; 100,000원 (일십만원정)

장미 품종과 장미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22 장미 전정시기와 방법

장미 식재와 경관 Rose Planting & Landscape

24 장미 배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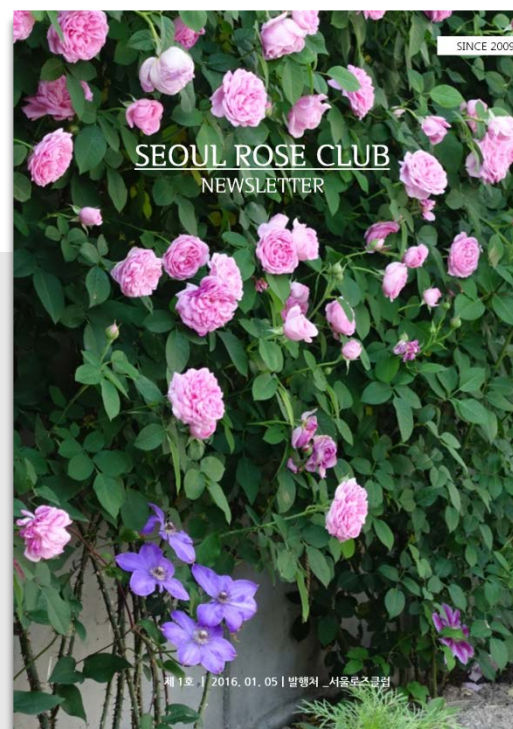
장미 관찰일지 Rose Journal

26 '토요일 정기 공부모임' 이야기

장미와 정원 소식 Rose & Garden News

30 아시아권의 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 수상 정원 기념식 개최

31 윌렘 코데스 3세 (Wilhelm Kordes III) 서거



/서울로즈클럽 회보 제 1 호/

-서울로즈클럽 회보지 창간을 맞이하여-

‘세계로즈소사이어티연합회 회장’의 축하 메시지

세계로즈소사이어티연합회(WFRS)는 1968년 런던에서 결성되었으며, 연합회의 창립 50주년을 2018년 차기 세계대회의 개최지인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WFRS의 주된 목표는 장미에 관한 지식의 전파를 촉진하고 39개 회원국가들 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6월 프랑스의 리옹에서 개최된 WFRS 세계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8년까지 3년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장미 가꾸기를 즐기하며 2,000여종의 장미를 저의 정원에서 손수 가꾸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식물 중에서 장미만큼 대중성을 가진 식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의 대중성은 모든 나라의 문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장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2016년 5월의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한국의 아름다운 정원들을 구경하고 장미애호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기 중의 주요 목표는 이러합니다.

회원국가의 수를 성장시키겠습니다.

WFRS의 지역 회의 (중국 - 2016년 5월, 우루과이 - 2016년 11월, 스로베니아 - 2017년 6월)와 WFRS 세계대회 (2018년 6월)에 세계 곳곳의 로자리안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WFRS 회원 국가와 로자리안들 간의 정보의 교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WFRS의 활동과 장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공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Social Media Group을 형성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각해보도록 희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역 로즈 그룹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이러한 활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면 우리는 수천 명의 새로운 로자리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미에 관한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이러한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장미 애호의 재능을 발휘하는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 모두를 저희들이 주관하는 어떤 WFRS 행사에서 뵈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로즈그룹의 무궁한 발전과 장미 애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WFRS 회의 초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빈 트림퍼

세계 로즈소사이어티 연합회 회장

Congratulatory Message

THE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

By Kelvin Trimper, *President, WFRS*

The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 (WFRS) was founded in 1968 in London, England. Our 50th Anniversary will be celebrated at our next World Rose Convention to be held in Copenhagen, Denmark, in 2018. Our primary goal is to expand contact between our 39 Member Countries and to increase the flow of knowledge about the rose. We hope that Korea may become the 40th Member of the WFRS.

I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WFRS in Lyon in June, 2015 and my term is for three years ending in 2018. I love and enjoy roses and have around 2,000 roses in my garden.

In my view, there is no other plant in the world which is as popular as the rose. This popularity exists in all cultures throughout the world. I certainly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rose in your country, Korea. My wife, Melanie, and I look forward to visiting Korea in May 2016 and having the chance to view some of your lovely gardens and also to meet the rose enthusiasts in Korea.

My main goals for the WFRS over the next few years include

Growing the number of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WFRS. WFRS Encouraging rosarians around the world to attend one of the WFRS Regional Conventions (China – May 2016, Uruguay – November 2016 and Slovenia – June 2017) or the next World Convention – Copenhagen, Denmark – June 2018.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WFRS website.

Increasing the flow of information between WFRS Member Countries and their rosarians. In this regard, we have formed a new Social Media Group to ascertain how we can embrace the new communication platforms to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the rose and the activities of the WFRS.

I have one wish that I ask each of you to consider. That is, I request each of you to encourage someone new to join your local Rose group. If we can do thi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Korea, we will have thousands of new rose lovers.

It would be a great help if each of you can share your knowledge of the rose. You do not have to be an expert to display your love for the rose. I also hope that each of you can also participate in a WFRS Convention in the future. I know that Mr. Wook-Kyun Kim has enjoyed the WFRS Conventions he has attended. I wish the Korean Rose Group every success for its future and may you all continue to enjoy roses. Please accept our invitation to attend a Convention if you have not been involved before.

Kelvin Trimper

President,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

‘일본 치바 자연사박물관의 미카나기 박사’



일본 치바 자연사박물관의 미카나기 박사

일본 치바 자연사박물관 및 연구소, 식물표본실 큐레이터
세계로즈소사이터연합회 장미보존 및 장미문화유산 위원회 위원장

서울로즈클럽 회보지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장미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에는 장미 야생종이 16종 있습니다만, 예로부터 원예식물로 사랑받아왔던 것은 중국 원산의 차이나로즈, 모코우로즈, 나니와이로즈 등이었습니다. 이들 장미가 일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온 것들도 많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현존하는 일본 역사 자료 중 차이나로즈가 그려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1309년의 춘일권현험기회(春日權現驗繪)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미]를 의미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8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 년을 넘는 아시아 장미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가로써, 한국의 장미 역사에도 상당한 흥미가 있고, 또한 현재 한국에 어떤 야생장미가 자생하고 있는지도 꼭 알고 싶습니다.

この度は、ソウルばら会会報のご創刊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韓国のバラの歴史に新たな1ページが開かれたこと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日本にはバラの野生種が16種類ありますが、昔から園芸植物として珍重されたのは中国原産のチャイナローズやモッコウバラ、ナニワイバラ等でした。それらのバラが日本に渡来する過程で、韓国を経由して来たものも多かっただろうと想像します。

現存する日本の史料のうちチャイナローズが描かれたものとして最も古いのは、1309年の春日權現驗記絵だと言われています。「バラ」を意味する言葉が記されている最も古い記録は8世紀頃まで遡ることができます。

千年を超えるアジアのバラの歴史を共有している隣国の住人として、韓国のバラの歴史にはたいへん興味があり、また、現在の韓国にどのような野生バラが自生しているのか、ぜひ知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ソウルばら会会報創刊にあたって, 御巫由紀 Yuki Mikanagi (PhD.)
Curator of Herbarium, Natural History Museum & Institute, Chiba (Japan)
Chairperson of the WFRS Conservation and Heritage Committee

세계장미협회의 Conservation and Heritage Committee 에서는 세계 각지에 남겨져 있는 인류의 문화 유산으로 헤리티지روز를 지키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옛정원이나 민가의 정원에 오래된 장미가 남겨져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미를 심고, 가꾸고, 아름다운 꽃을 모두 함께 즐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장미가 다른 원예식물과 다른 점은, 오랜 재배 역사 때문에 문헌이나 그림 등의 사료를 연구하면, 장미의 유래나 품종개량의 역사 등을 유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로즈클럽 회보지가 회원 여러분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장미를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시기를...◆ 또한 장래에는 여기서부터 세계로 한국의 장미 정보를 발신하고, 서울로즈클럽을 통해 국제교류의 한국 거점으로 발전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世界バラ会連合のConservation and Heritage Committeeでは、世界各地に残された人類の文化遺産としてのヘリテージローズを守る活動をしています。韓国でも古い庭園や民家の庭に、昔からのバラが残さ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バラを植え、育て、美しい花を皆で楽しむことはこの上ない喜びです。そしてバラがほかの園芸植物と違うのは、その長い栽培の歴史ゆえに文献や絵画等の史料を研究すれば、バラの由来や品種改良の歴史等を類推できることです。ソウルばら会の会報が、会員の皆様をしっかりとつなぎ、バラをより広く深く理解し楽しむ場となりますように。また、将来的にはここから世界へ韓国のバラ情報を発信し、ソウルばら会がバラを介しての国際交流の韓国の拠点として発展されることを祈念します。



-서울로즈클럽 소개-

‘푸르네 가든볼런티어’ 에서 ‘서울로즈클럽’ 이 되기까지

서울로즈클럽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장미에 관한 이야기와 장미를 통한 문화적 정서적 유대를 나누고, 우리 안들의 정원문화 회복을 함께 염원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저희 로즈클럽은 장미애호가들의 모임으로서 그 시작은 2009년 푸르네 가든볼런티어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원의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장미에 대한 습성, 품종, 관리, 경관적 요소, 문화적인 관점 등 장미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점차적으로 장미공부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삶 속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들어 주고 꽃과 식물이 주는 치유적인 효과를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 조금만 마음들이 모여서 자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현재 클럽의 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너싱홈 그린힐입니다. 그곳의 장미는 봉사자들의 손길로 해마다 어느 곳보다 멋지게 피어났고 보시는 분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당시 만해도 우리는 장미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전개되면서, 장미를 직접 심는 것부터 월동에 이르기까지 장미를 가꾸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많은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계화(四季花), 장춘화(長春花) 등은 우리의 옛 문헌에서 장미를 일컫는 장미의 옛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물이라는 인식이 커져 가면서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장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기를 희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친목과 공부모임인 사계장춘회(四季長春會)가 2014년 형성 되었습니다. 모임이 거듭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장미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나누기 위해 조금 더 개방적인 형식의 이름인 서울장미클럽으로 개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한해의 활동으로는 국내서적 및 선진 외국 서적("Growing Rose" by Alan Titchmarsh)을 번역하고 학습하였으며, 전국의 장미정원 몇 곳을 돌아보는 투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을 하는 의료 봉사단체인 '라파엘 클리닉'에 장미정원을 조성해 주기 위한 기부정원 모금활동을 진행하였고 2016년 조성을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서울로즈클럽은 오늘 발행하는 월간지 뉴스레터의 발행을 시작으로 규약과 홈페이지, 장미정보와 한국 자생 야생장미의 database, 등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 준비하여 많은 분들이 저희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저희 서울로즈클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장미의 지식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 영역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장미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 정원 속에서 장미를 볼 수 있도록 장미 재배 정보의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글 ; 황보순 로자리안





‘화요일 정기 공부모임’ 이야기

자연과 더불어 서로 공존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물을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즈클럽은 매월 화요일 연구 모임 시간을 통해서 장미의 생육조건, 병충해, 토양 등 이론적인 기본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시간에 모인다는 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달에 한 번 이 시간은 장미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들의 식물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 선호하는 것들은 다르겠지만, 식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서울로즈클럽은 많은 종류의 식물 중에서 ‘장미(Rose)’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장미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식물계, 속씨식물문, 쌍떡잎식물강, 장미목, 장미속, Rosa로 분류되며, Rosa는 품종을 의미하여 종류 별로 장미의 이름이 불리어 집니다. 사람들은 장미의 아름다운 꽃을 좋아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가꾸며 꽃의 피우게 하는 것도 굉장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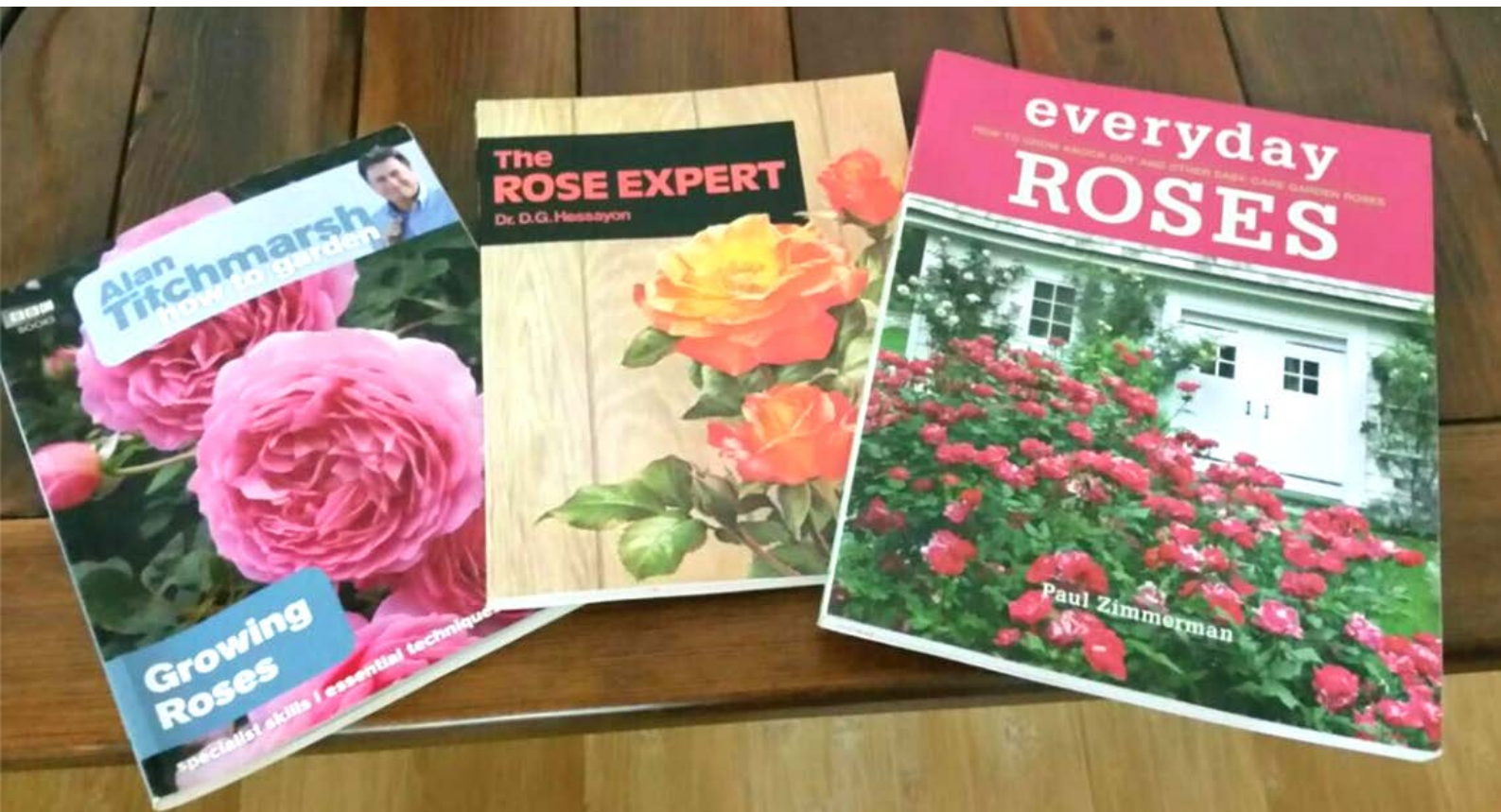
장미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장미가 지내고 있는 장소를 관찰하고 장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장미는 식물의 특성인 광합성을 해야 살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과 수분 공급이 기본으로 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온도, 토양, 바람, 영양성분, 병해충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미에 대하여 이름을 알아 두고, 습성을 파악하면서 손질을 해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관찰 기록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의 계절이지만 우리나라 식물들은 24절기를 따라서 생장합니다. 입춘을 가까이에 두고 식물들이 겨울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당에 낙엽들은 치워서 폐기처분하시고, 가지치기 등의 손질도 해주시고, 새순이 돌아나기 전에 병해충 방제도 하도록 합니다. 올 해도 아름다운 장미 키우기가 성공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또한 화요일 연구모임에 이어 토요일 실습 모임은 더 실감나고 보람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로자리안을 꿈꾸는 여러분을 화요일 장미 공부 모임에 초대 합니다.

글; 김민숙 로자리안



‘장미 책’ 이야기

우리 서울로즈클럽에서 장미 소식지를 처음 만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이제 그 소식지의 한 부분에 저의 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회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이 소식지가 계속 되어 더욱 더 많은 이들이 장미를 사랑하고 키우는 등대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장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모든 분들이 같이 가져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바램을 창간호에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코너는 서울로즈클럽에서 장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도서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저희 장미 모임을 모든 면에서 이끌어 가주시는 김옥균 선생님께서 그 동안 혼자 공부를 하셨던 교재들 중에 꼭 읽고 넘어가면 좋을 책을 위주로 선정하여 주셨는데, 이를 토대로 여기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1. 장미(ROSE), 2. 장미가꾸기의 기본 상식, 3. THE ROSE EXPERT, 4. Growing Roses, 5. 장미 재배의 신기술의 책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미 (ROSE)’는 자크 바로, 펠리프 봉뒤엘, 앙드레 에브가 만든 책으로서 이 책안에는 장미의 탄생에서 장미의 재배, 그리고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장미의 역사와 재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역시 읽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장미가꾸기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장미가 좋아하는 환경, 심는 시기, 심는 요령, 전지와 도장지의 손질, 물주기와 멀칭, 병충해 방제 및 소독, 그리고 겨울철 월동관리등에 대해서 함축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THE ROSE EXPERT’로서 영어로 되어있는 외국서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다보면 한국에서도 장미를 가꾸는 방법에 대하여 이런 내용의 책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일어나는 책입니다. 장미를 처음 접하는 분도 그림으로 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고 영문 내용을 사전 찾아가면서 보면 아주 가치있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우리도 빨리 이런 책을 만들어서 장미를 제대로 알고 잘 가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장미의 부분별 명칭을 시작으로 장미 꽃의 형태, 장미 종류별 특성, 장미의활용, 장미 심기, 장미 관리, 장미 병충해, 장미의 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 외에도 Alan Titchmarsh의 How to garden의 ‘Growing Roses’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도 독자가 아주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은 처음 장미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다른 식물과 장미를 같이 키우는 방법, 장미 자체의 심기와 키우기, 추천해줄 만한 장미, 그리고 장미를 좀 더 색다르게 키우는 방법소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 재배의 신기술’은 경주 장미원의 권상봉 선생님께서 1963년도에 쓰신 아주 오래된 책으로서, 그 당시에 아마도 장미관련된 전문 서적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쓰셨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외국서적들을 참고하여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재 편집해서 만들었던 것이라서 여기저기 전문적인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외국단어적 표현이 보여서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미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기초 입문부터 고급의 내용까지도 얻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미를 가꾸고 싶어하는 경우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장미의 내력과 재배법의 분류, 장미의 번식, 장미의 품종개량, 장미의 재배, 장미의 병/벌레, 방제, 장미를 이용해서 가든을 만드는 방법, 전지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보시고, 윤기있고 문화가 있는 장미키우기 생활을 같이 한번 누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글; 유병국 로자리안



〈서하나 작가 ‘찾주전자’ 모작〉

민화로 만나는 장미

얼마 전 부터 집 근처 작은 화실에서 현대 민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민화는 조선시대 민중들의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으로 집안 곳곳에 즐겨 부착하는 그림 부적이었습니다. 고도의 예술성 표현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필요에 의해 그려진 일종의 실용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즈클럽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일에 자연스레 장미를 연관시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보통 꽃을 주제로 하는 민화 작품에는 연꽃이나 모란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 많아서 장미를 민화에 그려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모던 작가 서하나님의 '찾주전자'를 발견하고 도전해 보았습니다. 현대의 모던함이 밑바탕이 되어 한국 전통 채색의 다채로움을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미적 감각과 테크닉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저의 그림은 발림도 엉망이고, 아직은 좀 어설픈 색칠하기이지만, 민화안에서 장미를 표현한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스케치한 장미를 주제로 한 창작그림을 그릴 날도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장미의 꽃말은 색깔별로 사랑, 열정, 질투, 순결, 우정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 처럼 민화에 장미를 그려 넣어 원하는 바를 기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 그림 ; 이은주 로자리안

Rose Gardens



첫 장미여행 이야기

여행은 언제나 많은 것을 보면서 함께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된다. 특히 이번 서울로즈클럽 장미여행은 더욱 그렇다. 로자리안들이 떠나는 처음 장미여행이라 더 기대가 되었고, 또한 장미 관련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장미정보를 공유하는 멋진 시간이 되었다. 장미 하나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래된 벗처럼 대해준 시간은 장미여행의 진한 향기로 아직 자리하고 있다.

장미가 일반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긴 시간동안 노력해준 선배로자리안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장미원을 설명 듣고 있자니, 우리들의 장미원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었다.

국제화훼종묘와 조선대학교 장미원 그리고 곡성 장미원 정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에도 국내에 조성된 장미원을 조사하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특히 이번 장미여행은 회원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여행이 되었다. 소쇄원의 정원을 거닐며 우리만의 이야기꽃을 피우고, 함께 나누었던 식사와 밤늦도록 주고받은 이야기들 속에는 로자리안들의 꿈꾸는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장미여행이 되었다.

글 ; 이성현 로자리안



현대적 감각에 영국 풍경식 정원이 더해진 특별한 장미정원

영국 런던의 남쪽 서리(Surrey)에 위치한 사빌 가든의 장미정원(The Rose Garden at the Savill Garden)은 흔히 볼 수 있는 유럽의 장미정원과는 사뭇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본래 사빌 가든은 영국 왕실 소유인 윈저 대공원(Windsor Great Park)의 일부로 왕실의 사냥터와 농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으나, 1932년부터 정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장미정원은 2010년 재구성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직접 참석하여 개장한 특별한 장미정원입니다.

향기와 색깔, 장미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에 중심을 두고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에 영국 풍경식 정원(picturesque garden)을 가미한 장미정원입니다. 정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중심자리에 뱃머리 같이 떠있는 특별한 전망대 (walkway)에서 장미의 향기와 색깔을 최대한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디자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이 장미정원의 특징은 여러 품종의 장미를 전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의 품종만을 식재한 것입니다. 흔히 유럽의 장미정원에서 보이는 유인용 펜스(climbing fence)나 pillar, trellis, pergola 같은 조형적인 틀과 다른 유인 구조물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긴 흐름의 double rose border를 조성하고 덩굴장미 없는 관목장미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모두 2500주의 장미가 식재된 이 정원의 품종은 28가지입니다.

하부 식재 또한 다른 mixed border에 많이 사용하는 Salvia, Geranium, Foxglove, Allium 같은 보완적인 색깔을 구성하는 companion plants는 일체 배제하였습니다. 다만 갈대 같은 grass 종류만을 사용하여 물결치는 느낌의 가장자리 화단을 구상하였다고 합니다.



Thames Valley 의 'Savill Garden'

대체적으로 David Austin의 New English Rose를 식재한 이 정원의 color scheme은 gradations 을 적용한 색상의 단계적 변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연한 빛 색상으로 시작해서 중앙부분은 심홍색 장미로 색상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품종으로 보면 바깥쪽은 Glamis Castle 같은 크림색 흰빛의 장미가 보이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서면 Harlow Carr, Gertrude Jekyll 등의 핑크색이, 그리고 중앙에는 William Shakespeare 2000, Munstead 등 붉은 장미가 차례로 보입니다.

디자이너 앤드류 윌슨이 그라스 류를 사용한 것은 억새(Miscanthus sinensis)를 간간히 심어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곡선의 우아한 느낌을 끌어내고, 장미의 색상의 변화와 같이 점진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흐르는 시간적 연상을 의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솟아오른 것 같은 그라스 류(Molinia caerulea)는 장미꽃의 backdrop 같은 느낌을 주어 인근의 숲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의 풍경을 연출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 사빌 가든이 있는 Surrey는 테임즈 강을 따라 위쪽 영국 중부의 Oxford 지방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Thames Valleys 지역으로 자연과 풍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목가적인 영국 시골 풍경과 호젓한 강변 마을을 만날 수 있는 이 지역을 여행하면 길가의 조그만 cottage 식당, 아주 오랜 Pub, 그리고 Bed & Breakfast 같은 영국적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글 ; 김옥균 로자리안





장미 전정시기와 방법

장미는 유형에 따라 전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각각의 개별적인 그룹에 대하여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죽거나 상처입고 병들고 또는 말라가는 목질부분, 흠지 그리고 꽃이 피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주세요. 겨울이 온화한 지역에서는 늦은 겨울에 주요한 전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추운 지역에서는 이른 봄까지 그냥 두기 바랍니다.

모든 장미는 한겨울까지 남겨 두야 할 매력적인 열매(Rose hips)의 결실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꽃이 피고난 후에는 시든 꽃들은 잘라 주십시오. 미니어처 장미는 아주 가벼운 다듬기만 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들이 사라질 수도!

1. 하이브리드 티 장미
(Hybrid Tea-대륜 장미)
& 플로리번다 장미
(Floribunda-주저리 장미)

늦은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

약하고 막대기 같이 가는 줄기, 그리고 그 식물의 중심에서 서로 교차하며 경쟁하는 줄기는 모두 제거하세요. 무릎 바로 아래 높이(약 6~12인치)로 주간을 잘라주세요.

여름에서 가을까지 :

꽃이 한창 피고난 후에 시든 꽃은 하나하나 제거해 주세요. 또한 길고 제멋대로 자란 가지는 잘라주세요.

2. Shrub Rose
(관목형 장미 -전체)
/ 여름개화품종, 지속개화품종

늦은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

약 1/3이 될 때까지 줄기를 자르세요. 늙고 목질화된 가지는 그 식물의 맨 아랫부분까지 잘라서 제거하세요.

여름 :

꽃이 완전히 개화하기를 멈추고 난 후에 시든 꽃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여름에서 가을까지 :

꽃이 한창 피고난 후에 시든 꽃은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마지막 개화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해주세요.

3. 파티오 장미 (Patio)
& 그라운드 커버
(Ground Cover- 지피성 장미)

늦은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

겨울 내내 잎이 말라버린 가지 끝은 손이나 가위로 빠르게 똑하고 잘라 주세요, 약하고 부러진 가지 또는 밀집되어 있는 가지는 제거해 주세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

꽃이 한창 피고난 후에 시든 꽃은 하나하나 제거해 주세요.

4. 덩굴성 장미
(Climbing Rose)

가을 :

오래 되고 불필요한 가지는 지표면에서 30 센티까지 자르세요. 새로 난 가지는 수평적으로 유인해서 안으로 묶어주세요, 다루기 힘든 가지도 모두 묶어주세요.

늦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

주간으로부터 나오는 측면가지는 2~3개의 순을 남기고 자르세요, 약하고 가늘게 성장하는 것은 제거하시고 성장이 다 된 직립가지는 묶어주세요.

여름 :

만약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화 후에 시든 꽃을 제거해 주세요.

5. 램블러 장미 (Rambler)

여름(열매를 지닌 것들은 제외) :

개화 후에 그 꽃이 달린 가지 더 아래에 새순이 돋는 곳까지 가지를 제거해주세요. 새 순은 맨 아랫부분에서 올라옵니다.

가을 :

길고 다루기 힘든 가지는 안으로 묶어주세요.

늦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

필요하면 가지를 솜아주세요. 다 자란 식물의 경우 늙고 목질화된 가지는 식물의 맨 아랫부분까지 잘라주세요.

출처 : Alan Titchmarsh
"How to garden"
번역 ; 황보순로자리안



장미 배식방법

장미가 개화하기 전인 겨울과 이른 봄 사이에는 음산한 정원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고, 장미 개화 시에는 계절적인 색감을 더해 줄 수 있는 식물들을 장미와 함께 식재합니다. 특히 장미의 색과 잘 조화를 이루는 칼라와 질감을 가진 식물과 함께 식재하면 장미의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되고 꽃을 볼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2가지 중요한 잇점이 있습니다.

장미와 어울리는 일년생 초화로는 아주가, 앵초, 금낭화 등 다양한 초화가 있습니다.

장미가 피기 전인 이른 봄에 피는 은쭉, 로즈마리, 스노우드롭, 아네모네, 수선화, 튜립, 노파의모자로 알려진 메발톱, 알리움 등의 구근류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진한 색감을 볼 수 있는 식재가 있습니다.

가을 장미와의 혼합 식재가 가능한 것은 아스타, 세덤류, 톱풀, 그라스류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목도 장미와 좋은데 배경으로 고향나무, 병꽃나무, 미스킴라일락이 잘 어울립니다.

참고로 장미 병해충에 도움이 되는 식물은 라벤더가 진딧물, 타입, 세이지, 히스플은 해충억제, 금잔화는 선충류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글; 곽은주 로자리안

Rose Planting & Landscape



‘토요일 정기 공부모임’ 이야기



한 달에 한번,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광주에 소재한 너싱홈 그린힐에서 장미 토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주말에 만나는 이 모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향 가득한 너싱홈 그린힐에서 토요일 10시, 우리의 매력적인 로자리안들이 하나 둘 모입니다. 우선 즐거운 인사와 함께 향긋한 커피로 지난 시간들에 대한 답소를 나누며 모임준비를 합니다.

토요 모임은 크게 이론과 실습,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오전에 주로 이론 및 사례에 대한 내용을 나누며 점심식사 후 오후 3시 반까지 실습을 하며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오전부터 실습을 하곤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습을 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실습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시작, 3월 첫 모임에서는 장미모임에 대한 계획, 겨울전정, 겨울정원관리, 시비실습을 했습니다.



4월에는 장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꾸어보고, 연출하기 위한 공부와 실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습을 통해서 각자의 장미를 키우게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5월에는 건강하고 화려한 장미를 보기 위해서 장미방제에 대해 배웠고 너싱홈 그린힐의 장미정원에서 실습했습니다.





6월에는 아쉽게도 메르스로 인해 모임을 안했습니다. 7월에는 뜨거운 햇살로 인해 실내에서 이론공부를 하였고 너싱홈의 화려한 장미를 즐겼습니다.



8월에는 장미를 다듬어 주었고, 처음으로 토요일모임대신 장미국내사레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국제화훼종묘 주식회사, 조선대학교 장미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 국립원예특작원의 장미포장 등 장미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에는 푸르네 정원축제 참여하여 정원을 통해 행복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에는 6월 장미향과 함께 하는 푸르네 정원축제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정리하며 12월 송년모임을 하였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며 더 큰 포부의 내년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미를, 정원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함께 한 1년을 돌이켜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따듯해집니다. 2016년에는 장미와 함께 더욱 더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김수연 로자리안



City of Sakura Rose Garden _Japan
(photo Katsuhiko Maebara)



Keisei Rose Garden _Japan
(photo - Melanie Trimper)

-국제로즈소사이티 소식-

아시아권의 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 수상 정원 기념식 개최

WFRS에서는 3년마다 개최되는 WFRS 세계대회에서 세계 주요 장미정원 중에서 우수한 정원을 선정하여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프랑스의 리용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수상 정원은 일본의 치바현의 사쿠라시 장미정원과 경성장미원, 아타미의 아카오 장미정원 그리고 중국 베이징 식물원의 장미정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권의 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 수상 정원기념식이 지난 10월과 11월에 일본과 중국에서 각 개최되었습니다.

글;김옥균 로자리안

사진참고 ; WORLD ROSE NEWS, January, 2016

Award Winning Gardens:

- The City of Sakura Rose Garden
- Akao Herb and Rose Garden
- Keisei Rose Garden
- Beijing Botanical Garden Rose Garden



Beijing Botanical Garden Rose Garden _China
(Dr. Zhao Shiwei at the plaque unveiling ceremony in the 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 plaque)



Akao Herb & Rose Garden _Japan
(photo - Yuki Mikanagi)



힐렘 코데스 3세 (Wilhelm Kordes III) 서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육종가 힐렘 코데스 3세가 2016년 1월 22일 오후 독일의 함부르크 교외의 Sparrieshoop에서 지병으로 별세 하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독일 코데스社의 창업주인 Wilhelm Kordes I 세의 증손자로 오늘날의 코데스家を 이끌어 온 육종가이었으나 장기간 병석에서 투병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미 명문家 코데스社는 올해로 창립 12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로즈클럽은 힐렘 코데스 3세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 1호 | 2016. 01. 05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

회원가입 및 구독문의 seoulroseclub@naver.com

황보순 로자리안 : 010-4761-2373

입회비 : 100,000원 (일십만원정)